

녹색산업육성 · 녹색생활문화 확산 바람 솔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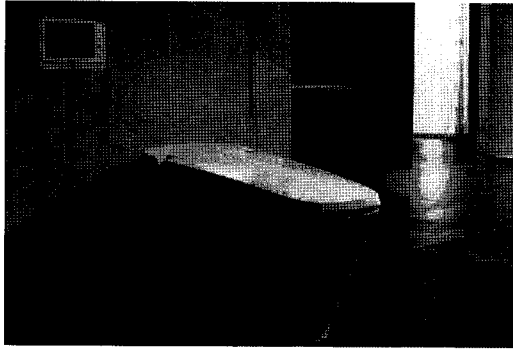


▲ '2011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가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A&B홀에서 개최됐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육성과 녹색생활 문화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A&B홀에서 '2011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를 개최했다.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을 30% 감축하자는 의미를 담아 'Me First, 2030 Green Korea'로 슬로건을 정한 이번 행사에서는 녹색제품 생산 기업·단체 203개사가 712개 부스를 활용해 행사장을 방문한 4만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녹색환경 제품 및 기술 등을 선보였다.

전시관	전시내용
녹색제품관	• 환경마크 인증 생활소비재(세제, 문구, 용기 등), 가구 및 전자제품, 건축자재등 제품 전시
녹색유통 서비스관	• 환경 친화적인 매장운영 및 탄소배출 감축·사회공헌 활동 홍보 • IT기술과 결합된 친환경 스마트 사이버스토어 시연
녹색기술 에너지관	• 녹색인증 기업들 참가 • 태양 및 풍력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자원화 기술·수생태복원기술 시연
해외기업관 (ANMC21)	• 5개국(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16개사 참가, 글로벌 녹색제품과 기술 전시
그린카드 특별 홍보관	• 녹색제품 구매와 녹색생활 실천으로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등 소개, 그린카드 발급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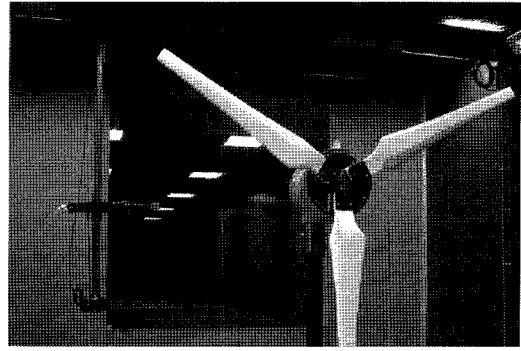
▲ 대림바스 '스마트렛 프레스티지'

■ 다양한 녹색건축 · 기술 상품 전시

이번 저탄소 녹색성장 박람회에는 다양한 친환경 건축기술과 풍력·태양력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술 등이 선보였다.

특히 욕실·주방용품들 중에서도 친환경 기능을 높인 제품이 다수 선보였다. 욕실용 내장업체 대림바스가 선보인 비데일체형 스마트 도기 '스마트렛 프레스티지'는 욕실에서 TV시청, 음악감상 등을 할 수 있도록 DMB를 장착한 리모컨이 탑재되어 있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마크를 획득할 정도로 절수 기능을 높임과 동시에 수세 기능도 더욱 강화했다.

양변기 전문기업 보광세라믹스는 물소비를 기존 양변기의 절반 수준인 4.8ℓ로 줄이면서도 세척력은 기존과 같게 유지하는 초절수 양변기 '러뷰'를 내놓았고, 넵튠은 절수 기능에 특수 위생 처리로 살균력을 갖춘 양변기를 비롯해 살균과 냄새 분해 기능을 구비한 욕실용품들을 전시했다. 한편 한국수와로는 수도꼭지 주위의 움직임 센서로 감지해 수량과 물 온도를 조절하는 자동 수도꼭지를 출품했다. 에이티티가 선보인 소형 풍력발전기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제품은 비교적 약한 바람인 초속 1~1.5m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 초속 60m의 바람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로 강한 돌풍이나 태풍에도 안전한 점이 특징



▲ 에이티티 '소형 풍력발전기'

이다. 또 태양광 업체인 신우테크에서 내놓은 다양한 태양광 가로등 제품도 눈길을 끌었다. 이 제품은 태양광을 배터리에 충전해 야간에 LED(발광다이오드) 등의 램프를 점등시키는 방식의 친환경 제품이다.

■ 녹색성장 관련 컴퍼런스 병행 개최

박람회 기간 동안 환경산업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14개의 국내·외 컨퍼런스가 열려 환경인증제도, 환경정책동향, 녹색환경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 '우수녹색환경기술 설명회'에서 소개된 인천메트로의 <에너지 절약형 환기량 제어 시스템>은 지하철 역사에서 실시간으로 측정된 공기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기량을 제어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역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으로, 에너지 36% 절감 및 미세먼지 4% 저감 효과를 보여 큰 관심을 받았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한 '녹색인증제도 설명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그린주택 등 미래 녹색환경 관련 영역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녹색인증제 소개 및 신청절차, 녹색인증 기업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혜택, 녹색인증제도 획득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